

‘선두권 경쟁’ AI페퍼스, 승점 3점 사냥 나선다



한국생명 배구단과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네 번째 경기에서 승리한 AI페퍼스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KOVO



오늘 오후 7시 광주페퍼스타디움서 한국생명 상대 4승 2패 승점 10점 리그 3위…수비 집중력 키워야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선두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승수 추가에 나선다.

AI페퍼스는 13일 오후 7시 광주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한국생명 배구단과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첫 번째 경기를 치른다.

앞서 지난 9일 정관장과외의 경기를 끝으로 1라운드 일정을 마무리한 AI페퍼스는 현재 4승 2패 승점 10점으로 리그 3위에 안착했다. 이 기간 팀 역대 최고 순위다. 특히 이번 1라운드에서 AI페퍼스는 현

대건설, 한국생명, GS칼텍스를 연파하며 올 시즌 첫 3연승이자 구단 역대 최대 연승 타이틀 기록하기도 했다.

이전 시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패배의 식에 젖어있던 것과는 달리 코트 내 선수단의 움직임이 유기적이고, 서로를 믿는 플레이가 눈에 띄었다. 집중력이 올라갔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격차가 벌어지면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뒷심이 부족해 패배하는 경우가 급격히 줄었다. 직전 시즌에서 이미 승리의 맛을 느껴본 AI페퍼스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AI페퍼스는 아시아쿼터 시마무라가 86득점, 외인 조이 70득점, 박정아 66득점, 박은서 65득점, 이한비 51득점 등으로 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중 시마무라는 각종 지표에서 상위권에 안착해 있다. 6경기에서 86득점(공격성공률 47.86%)으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졌고, 이 부문 리그 10위를 달리는 중이다. 또 블로킹 3위(세트당 평균 0.74), 속공 1위(성공률 58.33%), 이동공격 5위(성공률 46.00%) 등을 기록했다.

특히 이동공격의 경우 사실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주아(시도 26회·성공률 57.69%)의 2배에 가까운 50회를 시도하고 있다. 다른 선수들보다 압도적인 시도에도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며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팀 전반적인 공격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12일 경기 전 기준 AI페퍼스는 공격 부문 지표에서 공격종합 6위(시도 817회·성공 301회·성공률 36.84%), 오픈공격 7위(시도 334회·성공 99회·성공률 29.64%), 서브 7위(시도 485회·성공 19회·범실 53회·세트당 평균 0.83) 등 모두 리그 하위권이다.

이러한 수치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비와 세터의 활약이 필요하다.

AI페퍼스는 디그 4위(시도 562회·성공 472회·실패 89회·세트당 평균 20.52)에 이름을 올렸으나, 리시브는 6위(시도 452회·정확 144회·리시브 효율 26.11%)에 머물렀다. 기본기인 리시브가 흔들리다 보니 공격로가 단순해진다는 점이 문제다.

첫 스타트가 흔들리면 세터 또한 활약하기 쉽지 않다. 실제 세터와 공격진의 원활한 연결을 판가름하는 세트 또한 5위(시도 839회·성공 289회·세트

당 평균 12.57회) 수준이다.

전반적인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수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경기 상대인 한국생명은 현재 2승 4패 승점 7로 리그 6위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3경기 상대 전적 역시 2승 1패로 AI페퍼스가 우위에 있다.

그럼에도 경계를 늦출 순 없다. 한국생명은 세 외인 레베카가 득점 부분 4위(140득점)를 달리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올 시즌 FA 최대였던 미들블로커 이다현 또한 세트당 평균 0.81개의 블로킹으로 선전하는 중이다. AI페퍼스가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올 시즌 달라진 모습으로 팬들에게 기쁨을 안기고 있는 AI페퍼스가 현대건설을 꺾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홍명보호, 볼리비아 상대 ‘중원 플랜B’ 테스트

황인범 빠진 미드필드 새 조합 관건… 20개월만에 복귀한 조규성 주목

홍명보호가 남미의 다크호스 볼리비아를 상대로 중원 조합 ‘플랜B’ 테스트를 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평가전을 치른다.

이달 A매치 이후 국제축구연맹(FIFA)이 발표하는 세계 랭킹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포트가 결정된다.

현재 22위로 포트2 수성의 마지노선인 23위 언저리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번 A매치 기간 승점 고를 올려야 안심할 수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10월 파라과이와 평가전에서 관중이 2만2000여명밖에 오지 않아 흥행 실패를 겪은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든 최근 한 승리가 절실하다.

볼리비아전에서 승리해 분위기를 띄워야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가나와 평가전의 흥행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홍명보호의 주축 선수들이 잇달아 다쳐 상황은 녹록지 않다. 홍명보호의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시티) 두 중앙 미드필더가 부상으로 소집 해제됐고, K리그1을 주름잡는 2선 공격수 이동경(울산)도 다쳐 이번엔 함께할 수 없다.

대표팀의 불박이 주전으로 활약해온 황인범의 낙마는 특히 뼈아프다. 흥 감독으로서선 황인범과

함께 중원을 지킬 ‘최고의 짝’을 찾는 주요 과제를 일단 미뤄두고 중원 조합의 ‘플랜B’를 마련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엔스 카스트로프(빈헨글라트바흐), 김진규(전북), 권혁규(강릉), 원두재(코르파칸), 서민우(강원) 중에서 어떤 미드필더가 홍 감독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악성 무릎 부상을 이겨내고 무려 1년 8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단 스트라이커 조규성(미트윌란)의 그라운드 복귀 여부도 관심거리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멀티골을 뽑아 냈던 조규성이 제기량을 보여준다면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없는 홍명보호는 좋은 공격 옵션을 늘릴 수 있다.

소속팀 로스앤젤레스(LA)FC의 미국 메이저 리그사커 플레이오프 8강 진출을 일확 확정 짓고서 열흘 정도 폭 쉼 뒤 볼리비아전을 맞는 ‘캡틴’ 손흥민은 어느 때보다 가벼운 몸놀림으로 그라운드를 누빌 거로 보인다.

상대 볼리비아의 FIFA 랭킹은 76위로 한국이 54계단이나 위에 있다.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1승 2무 무패로 앞선다. 최근 대결인 2019년 3월 울산에서 가진 평가전에서선 이청용(울산)의 골로 한국이 1-0으로 이겼다.

그러나 강호들이 즐비한 남미에서 월드컵 예선



손흥민



조규성

7위로 살아남아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지금의 볼리비아는 무시해선 안 될 상대다.

스타는 없지만 조직력과 ‘파이팅’이 워낙 좋아 때로는 강팀도 꺾어버리게 만들곤 한다. 이번 남미 예선 최종전에서는 해발 4100m 고지대로 악명높은 홈구장 엘알토 무니시팔 경기장에서 브라질을 1-0으로 물리쳤다.

남미예선에서 활약한 베테랑 중 다수가 이번엔 소집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경험치’가 내려간 점은 변수다. 라트비아 아우다에서 뛰는 21세의 엔소 몬테이로가 이번 볼리비아 공격전에서 A매치 출전 경험(9경기)이 가장 많은 선수다.

수비진과 미드필더도 20대 초중반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본선 진출 여부가 갈릴 내년 3월 대륙간 플레이오프가 볼리비아에 가장 중요한 경기인데, 이번 11월 동아시아 원정에서는 이에 대비해 어린 선수들을 테스트하는 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연합뉴스

광주FC, 홈 폐막전 특별 할인 이벤트 진행

22일 입장권 40% 할인·수험생 1000원 혜택 제공



프로축구 광주FC가 올해 마지막 홈경기를 기념해 팬 감사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는 오는 22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37라운드 울산HDFC전에서 홈 폐막전을 맞아 입장권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FC의 3년 연속 K리그1 잔류와 시도민구단 최초 AFC 챔피언스리그(ACLE) 8강 진출, 그리고 창단 첫 코리아컵 결승 진출 등 올 시즌의 뜻깊은 성과를 팬들과 함께 축하하고, 보내주시는 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경기 입장권은 전 좌석 40% 할인(원정석 제

외) 혜택이 적용되며, 수능을 마친 수험생은 1000원에 입장 가능하다. 예매는 온라인과 현장 모두에서 가능하다.

또한 광주는 2025시즌 멤버십 회원에 대상으로 플레이어 에스코트 44명을 선발, 경기 전 선수들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팬 이벤트 및 코리아컵 결승 출정식 응원 퍼포먼스도 준비 중이며,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노동일 광주FC 대표사는 “올해도 아낌없는 응원으로 구단과 함께해주신 팬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홈 최종전은 팬과 구단이 함께 시즌의 마무리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